

국힘 “90~100석”...민주 “110석+α”

여야, 총선 판세 분석...국힘 40곳·민주 44곳 경합 지역 예상 與 “접전지 우세권 소폭 증가”...민주 “수도권·PK 장담 못 해”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현재, 지역구 254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90~100석', 더불어민주당은 '110석+α'를 확보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이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46개)은 제외한 수치다.

각 당의 선거전략단위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석 전망치가 다소 늘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반 판세를 '74~82석' 선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했다.

지난 주말사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부 접전지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면서 지도부 내부적으로 판세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이중섭 논란” 등 리스크가 해소돼 표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기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일부 경합 지역이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돌아서는 변화가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지난 26일 발표된 ‘110석+α’ 전망치를 유지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는 이같은 전망치에 최신 여론 흐름 등을 반영해 4일 구체적인 자체 판세

분석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합 지역은 50곳은 넘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등 접전지가 워낙 많아 선거 결과를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보·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 막판 논란 등 돌발 변수, 투표율 등에 따라 선거 흐름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 모두 각자 사·도당 차원에서 판단한 전망치도 차이가 있다. 이날까지 취합된 시도당별 자체 판세 분석에 따르면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0곳, 민주당은 146곳이 집계됐다.

각각 90~100석, 110석+α로 분류한 여야 중앙당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최대 20곳이 적었고, 민주당은 최대 36곳이 많은 결과다.

국민의힘에서 좁은 권역별 우세·경합우세 지역은 ▲서울 10곳 ▲경기 2곳 ▲인천 1곳 ▲충청 9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대구·경북 24곳 ▲강원 5곳이었다. 이는 중앙당과 사·도당 판세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다.

민주당 시도당이 파악한 우세·경합우세 지역은

▲서울 32곳 ▲경기 33곳 ▲인천 13곳 ▲대전 6곳 ▲충청 12곳 ▲부·울·경 16곳 ▲강원 3곳 ▲호남 28곳 ▲제주 3곳이다.

전국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40곳, 민주당은 44곳을 ‘경합’ 지역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북·전남 28개 모든 지역구에서 우세를 확신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승리를 예상하는 지역구가 전무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전원 열세로 판단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현 의석 6석 유지를 목표로 유일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심상정(고양갑) 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녹지지 않은 상황이며, 1~2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출마한 세종갑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0% 이상을 득표해 5석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1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2석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당내에서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목표 의석수는 10석이지만, 최근 지지율 호조로 그 이상의 의석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대통령 불참

3일 오전 제주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등 내빈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與 “청년 권익 맨 앞에” 청년청 설치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인규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저출생 대책으로 인규부 설치를 공약한 데

이어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 설치 약속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규부 산하에 뒤서 청년 정책을 통

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정하지 못한 20대나 30대 청년 유권자가 많다고 판단, 이들의 표시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주철현 “여순사건 망언 박정숙 후보 사퇴해야”

민주당 여수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후보는 3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는 여순10·19 사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 후보는 전남 KBS순천방송국에서 열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서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주 후보는 “토론 도중 발언을 지적하고 사과 요구까지 했음에도, 거부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여순사건특별법’을 14



연대 반란사건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어 주 후보는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재석 국회의원 231명 중에서 2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실정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망언”이라며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도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천인공도할 망언”이라며 “국민의힘도 합의를 특별법 정신을 부정하고 공적 후보자 자격이 없음으로 인정된 박 후보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정현 “호남 예산확보 선봉장 되겠다”

국민의힘 광주 광산갑 후보

‘보수의 힘’ 광주에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장을 지낸 김정현(광주 광산갑) 후보가 선거 막바지 고군분투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치 초년생임에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내며 광주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시장위원장 시절, 정부 공모 사업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국립 광주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비 10억원 확보 등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남대병원 새병원 신축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등을 이끌어내면서 광주시와 지역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현안사업 해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광주 광산구 운남동 육교 미끄럼 방지 포장 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광주 송정역 남단의 광장 조성 사업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시장위원장을 지낸 당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와 협력해 정부 부처와 중앙당의 가교역



할을 하면서 현안사업을 챙기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보수의 힘’ 호남에서 예산 확보 선봉장이 돼 지역발전을 이끌고, 후배를 양성해 경쟁과 건제의 구도로 정치 선순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5대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대 공약으로는 ▲광산구 내 국제·전국대회 유치기 가능한 108홀 파크골프장 ▲송정역세권 활성화 위한 랜드마크 ▲시니어 무료 급식소 확대 지원 ▲황룡강변 국가공원 조성 ▲토지거래 규제 완화 입법 추진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광주 출생으로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선거토론회 불참’ 민주 조인철 후보 과태료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정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광주 서구갑 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예정된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토론회 시작 1시간 30분 전 ‘몸이 좋지 않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조 후보의 불참으로 방송은 1시간 10분 가량 지연됐고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 단독 대담 형태로 바뀌는 등 파행을 빚었다.

위원회는 조 후보의 불참이 천재지변, 거동 불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다른 당 후보들은 조 후보가 ‘비상장주식 의혹’을 피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피로 누적 증상으로 진단받고 입원했다”며 “공약과 정책 설명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위한 기회를 빼앗게 된 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 옥상스틸방수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원룸 리모델링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